

새학기, 어린이에게 불서를 읽히자



고 토론했다.

활성화되지 못한 어린이·청소년 미약한 어린이·청소년 포교환경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솔바람 출판사 대표 동출 스님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며 "일선 사찰에서라도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불서를 권선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찰 주지 스님들이 불교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몇몇 불교계 출판사의 원력이 있어 적은 규모라도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불서 시장이지만 그 안에는 보배로운 책들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불교출판사의 《화가 낫어요》 시리즈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받았다. 솔바람출판사는 척박한 불교 만화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관련 도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불교시대사의 《나도 부처님 될래요》도 눈길을 끈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이 쓴 《나도 부처님 될래요》는 부처님의 생애를 52주 동안 한 단원씩 공부하도록 배우도록 꾸렸다. <관련 기사 22면>

불교계 출판 관계자들은 어린이 불서 출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단 차원의 어린이 불서 선정 등 범 불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학습만화가 어린이 출판 시장의 트렌드인 만큼 불교 문화와 학습만화 효과를 결합한 출판 콘텐츠 개발 등도 발전 방안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동출 스님은 "포교원이 매년 어린이 불서를 선정해 사찰과 불자들이 이를 권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열 대표 역시 "불교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어린이 책을 지원 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학습만화 시장이 대세인만큼 불교와 이를 연계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환 불광출판사 제작부장은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포교환경과 기본적인 불서 출판 시장 인프라를 성장시켜야 어린이 불서 시장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신진 작가 발굴 등 불교계 출판사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속 가능한 직업 교육 제안"

국제구호NGO(사)하얀코끼리가 2013년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이사회장 영담 스님을 비롯한 운영진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처 여사의 자택을 방문했다. 이날 자리에서 영담 스님은 직업교육센터 등 미얀마에 지속 가능한 직업 교육 지원을 제안했다.

관련 기사 5면

미얀마=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삼화사·진관사 수록재 무형문화재된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 8일 회의서 결의

연등회에 이어 동해 삼화사와 서 울 진관사의 국경수륙재도 국가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 임돈규)는 3월 8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삼화사와 진관사 수록재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삼화사, 진관사 수록재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한 달간 예고하게 된다. 별 이견이 없는 한 두 사찰 수록재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확실히 된다. 사실상 불교무형문화유산인 수록재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물과 육지에서 해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俄鬼)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배우는 의식이다.

중국 양무제 시기부터 불행한 것으로 알려진 수록재는 한국에서 고려 광종 21년(970)에 개설된 갈양사의 수록도량이 최초이다. 송유역불의 조선시대에도 유생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아 있던 만큼 국가 주도로 수록재가 봉행됐다. 실제 1606년(선조 39) 6월에 창외문 밖에서 있었던 수록재나 1433년(세종 15)에 효령대군 이시주가 된 한강에서의 수록재 때에는 양반·평민 등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길을 메울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삼화사와 진관사에서 매년 봉행되는 국경수륙재도 조선 태조 때 시작돼 역사가 깊다. 두 사찰 모두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에 수록재 복원과 정기적 시연 행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지정에 대해 불교 의례 전문가인 전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조계종 내 사찰에서 봉행됐던 의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는 것은 불교계에 큰 경사"라며 "이번 지정으로 소홀했던 불교 의례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승려 복지 캠페인 동참하세요

승려복지회, 출가 열반절 3월 '승보공양의 달'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가 출가 열반절이 있는 3월을 승려 복지 증진을 위한 '승보공양의 달'로 지정하고 범종도 승보공양 실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승려복지회는 승보공양운동 첫 행사인 3월 3일 조계사의 생명살림 기도법회에서 승보공양실천운동을 선포했다.

조계사 생명살림 기도 법회는 방생 주제를 '불생방생'으로 정하고 윤회·승보공양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특히 종단 스님들이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모금 ARS에 전 참가 인원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동참 후 참가자들은 "이제라도 종단 스님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시행돼 다행"이라며 "우리 신도들도 승보공양 운동에 기쁘게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조계종 포교원, 중앙신도회와 함께 3월 19일 출가제일부터 3월26일 열반제일까지를 승보공양 집중전·실천기간으로 정하고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 승보공양을 주제로 하는 선포법회를 봉행한다.

3월 19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출가제일 특별법회와 함께 승보공양 실천 주간이 시작을 알리며, 3월 26일에는 열반제일 법회를 통하여 연중 승보공양 실천운동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ARS (060)700-1077

대한불교청년회

연등회 서포터즈 모집

중요무형문화재 122호인 연등회에 외국인을 교육해 자원봉사자 참여를 돕고 거리 질서를 유지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오는 5월 2013 연등회 기간 동안 외국인 안내와 행사진행 보조, 외국인 대상 모티어링 등 자원봉사에 참여할 내·외국인 서포터즈 70-80명을 모집

한다"고 밝혔다.

모집을 통해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6회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연등축제기간 동안 청년 서포터즈들은 다른 참가자들의 행사 참여를 돕고 거리 질서를 유지하고 행사진행 등을 보조하게 된다.

서포터즈 모집은 한국에 체류 중인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2-30대 청년들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3월 2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02)738-1920

이나라 기자

931호 INDEX

종합	2·3	시방세계 하얀코끼리 미얀마 봉사현장	5	학술·문화재 "경허 논의 결말 아닌 시작"	7
2013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경주 남산을 오르다	12
조계종 제1기 중무행정학교 개강				해의	18
법정 스님 3주기 추모 법회				애타스스의 '명상바람'	
한마음선원 인재장학금 전달					
나눔의 집 할머니들 디텐드 고소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범어가 담긴 에코컵)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항스님의 법어!

도자기 범어가 담긴 에코컵

series 1. 마음 series 2. 대장부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색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size check
-- 75mm --
75mm
-- 55mm --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작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심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날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범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범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나로부러의 시각

내 마음에 엄청난 보배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일체 경계를 놓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음 속 보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